위스키를 소재로 한 참신한 애니메이션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요시하라 마사유키 감독 '코마다 위스키 패밀리'

애니메이션과 위스키, 왠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다. 그런데 영화 '코마다 위스키 패밀리'는 가업을 중시 여겨 대물림하는 일본의 전통이 워낙 강력한 요소이다 보니 실사 못지 않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섬세한 특성을 무리없이 보여주고 있다. 위스키에 문외한인 '뉴스밸류 재팬' 신입기자 코타로(목소리연기 오노 겐쇼)에게 위스키 관련 기획기사가 배정된다. 가업을 이어 코마다 증류소(주조장)를 운영하는 루이(목소리연기 하야미 사오리)와 함께 다른 증류소를 방문하고 루이가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 적는 일이 전부지만,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해 이직을 거듭하던 코타로에게는 갑자기 맡게 된 크래프트 위스키 취재가 재미도 없거니와 위스키에 관한 지식이 없어 일이 더디기만 하다.

그가 공부해야 할 크래프트 위스키는 마치 공예품을 만들어내듯 섬세한 기술과 진정성을 요한다. 증류소마다의 특별한 증류기술과 숙성기술, 브랜딩 기술에 따라 그리고 그 고장의 곡물과 물, 숙성 및 저장하는 통에 따라, 마지막으로 장인정신과 전통주조 방식에 따라 독특한 풍미와 차별화된 품질을 결과물로 내어놓게 된다. 이로써 탄생된 크래프트 위스키는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을 사로잡는다. 거의 영혼을 갈아넣었다 할 만큼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10년, 30년의 기다림을 맛볼 수 있는 주종이라할 수 있다.

요시하라 마사유키 감독 '코마다 위스키 패밀리'.

한편 루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최고의 위스키, '코마'를 복원하는 데 열중이다. 지진피해로 공장경영이 어려워진 코마다 증류소. 루이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 만들었던 걸작이자 최고의 위스키 '코마'를 포기하고 소주 '이토'만으로 공장을 운영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에 실망한 루이의 오빠 케이가 가출을 하고 과로로 건강을 잃은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난다. 미술을 전공하던 루이가 학업을 중단하고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남은 코마의 원액으로 '와카바' 위스키 블랜딩에 성공한다. 그렇지만 지진으로 유실된 코마의 원액을 새로 개발하지 않으면 와카바 역시 생산에 한정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오빠 케이는 대기업 오우무리에서 코마다 증류소를 인수하도록 강요한다. 루이가 코마다 증류소를 지키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증류소를 가업으로 삼은 할아버지, 아버지는 물론 전 직원들을 가족으로 여기던 가족기업이라는 생각이 강해서다.

증류소 경영 및 '코마'의 복원에 고군분투하는 루이의 신념은 코타로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세상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깨달음은 그를 성장시키고 그가 쓴 기사에는 진정성이 담기게 되어 기사로써 루이를 돕는 적극적 조력자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코타로는 '일의 의미'를 찾고 루이는 '해체된 가족'을 되찾는다.

영화의 일본 타이틀은 '코마다 증류소에 어서 오세요'다. 그보다는 키워드가 들어 있는 한국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다. 해체된 가족이 회복되고 고난이 다가와도 잃어버린 꿈을 찾고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서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마련이라는 듯 영화의 흐름은 순조로움을 타고 넘는다. 지극히 애니메이션답게.

그러다 보니 스토리와 연출이 평이하고 진부하기까지 해서 특별하다거나 인상적이었다고 말할 만한 매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스토리의 단서로 피니시 캐스크가 쓰였다. 1차 숙성까지 마친 위스키를 다른 술을 숙성한 통에 옮겨 담아서 앞서 담았던 술들에 의해 통이 품은 향과 맛을 덧입히는 과정이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사였다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풀지 못할 만큼 비밀스러운 단서도 아니어서 개연성 문제를 거론해 마땅할 일이었다고 본다. 예컨대, 요즘 방송되고 있는 법정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가 최유나 변호사라서 빈틈없는 스토리를 담듯 스토리에 전문적 배경지식은 필수적이어야만 객석을 설득할 수 있다.

영화의 장점으로, 위스키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참신함과 작화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배경이 되는 코마다 증류소는 일본 토야마현 토나미시에 있는 사부로마루 증류소를 모델로 거의 똑같이 작화를 해서 위스키를 소재로 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장치를 했다. 그밖의 타 증류소도 모델이 되는 증류소를 바탕으로 리얼리즘에 충실한 작화였다.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전통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무기력한 청년 직장인이 직업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은 영화의 특장점이었다고 본다.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영화 홍보상 '위스키 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요즘들어 '테라피'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여 일반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술에 '테라피'라는 용어를 접목시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찬성하기 어려워서 지나친 발상인가 싶다.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최고의 보물은 사랑에 눈을 뜨는 것

기고

주현진
칼럼니스트

요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어쩌면 평범하고 사소할 트로트 풍 가요지만 인생 100살이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는 현실 때문일까.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배꼽 잡고 웃으면서 '맞아 맞아' 무릎을 친 기억이 생생하다. 주위에서도 노래 가사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칠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팔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놀랍지 않은가? 코앞에 닥친 '100세 시대'에 딱 맞는 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수 없으면, 혹은 우주인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100살까지 산다는 게 우스게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인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겼고 해마다 1~2년씩 늘어간다고 한다. 그야말로 100세 인생이 남 얘기가 아니다. 해방둥이로 70대를 넘어 어느 덧 80대를 눈 앞에 둔 필자도 평균으로만 친다 해도 '아직은 쓸 만해서 못간다고 전해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년이 60세로 됐다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어느 모임이거나 만나면 가장 뜨거운 주제도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모아진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다. 대부분은 여행이나 봉사, 종교, 취미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들 한다. 그래야 시간이 잘 갈 거라고 한다. 사람은 희노애락이 다 비슷하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또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평생 웃어야 할 웃음의 크기와 흘려야 할 눈물의 양이 다 비슷하다. 가졌다 해서 더 많이 웃는 것도 아니며 못 가졌다 해서 그보다 덜 웃는 것도 아니다. 없는 자는 붕어빵 한 봉지로도 밤새 기쁠 수 있지만, 있는 자는 고급 호텔 음식으로도 전혀 기쁘지 않을 수 있고,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자가 근심이 10근이라면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자의 근심은 60근이 될 수도 있다. 짊어져야 할 짐도 사실은 다 같은 것이다.

심지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웃음과 눈물이 다 똑같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실패만 하고 몸에 병만 걸리며 인생사에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며, 열심히 믿어도 똑같이 실패를 하고 똑같이 병에 걸리며 똑같이 사고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찾아들게 된다. 아니, 믿기 때문에 세상사에서 불편한 일을 더 많이 겪게 된다. 그럼 왜 배우려고 하고 왜 가지려고 하며 또 왜 믿으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그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근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배우고, 가지고, 믿어도 세상을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고달픔 뿐이다.

그럼 사람의 근본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는 본래 사랑으로 빚어진 것이기에 자기 안에서 그 사랑만 찾으면 그가 걷는 삶의 여정에 보물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사랑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눈물 안에 담긴 기쁨이나 고통 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 보물이 많으며 또한 가짜로 보이는 진짜 보물도 많이 있다. 그런데 진짜는 항상 후미진 곳에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으며, 가짜는 또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빛깔이나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행복은 포장지(?)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이나 눈물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진짜 보물이 거기에 있고, 재물이나 웃음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은 가짜가 항상 그곳을 아지트로 삼기 때문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의 눈만 뜨면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을 얻은 것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혹시나 내 나이 90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사랑이 남아서 못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